

허동수 회장, 위스콘신 동문상 수상

GS칼텍스(대표 허동수)는 허동수 회장이 미국 위스콘신대 한국 총동문회로부터 <자랑스러운 위스콘신 동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월27일 발표했다.

허동수 회장은 1월26일 밤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동문회 신년회에서 김기석 서울대 교수, 김용민 포스텍(POSTEC) 총장 등과 함께 상을 받았다.



허동수 회장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석유제품을 국가 1위 수출품으로 키워 무역강국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허동수 회장은 1966년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가 1968년 위스콘신대 화학공학 석사, 1971년에는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1994년 GS칼텍스 대표이사 취임 이후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를 진두지휘하고, GS칼텍스를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정유기업으로 키워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2년 말에는 정유기업 최초로 <250억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영예로 이어졌다.

국내 산업·문화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00년 금탑산업훈장, 2005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2012년 금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13/01/28>